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이는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0월 6일)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사찰 행사 인원제한 완화
성지순례·해외NGO '시동'

'위드코로나' 첫발, 불교계 변화는
(with)

신성민 · 송지희 · 임은호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with)코로나'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불교계 일상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사찰 법회와 행사 시 인원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대면체제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얼어붙었던 불교국가 성지순례와 불교계NGO의 국제개발협력사업도 각 나라별 상황과 연계한 가운데 본격 가동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사찰 방역수칙' 을 발표하고 12월 12일까지 이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지를 전국 사찰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마스크 상시 착용과 거리두기, 공양 제한 등 기본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사찰 정기법회 및 행사 시 인원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11월 1일부터 사찰 정기법회는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 가능하며 '백신접종 완료자' 에 한해서는 인원 제한 없이 수용 가능하다. 사찰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가운데 99명까지 참석 가능하며, 백신 접종완료자만 참석하는 경우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미접종자도 48시간 내 진행한 코로나 검사 시 음성결과를 받거나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백신 접종 불가자(소견서 전제) 등은 포함된다. 다만 정기법회 시 공양은 여전히 제한되며 행사 시에도 공양과 숙박은 자제토록 권고했다.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코로나 시국 내내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대면법회와 대면행사 등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점진적인 대면신행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조계사 백신패스' 제하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이를 통해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법회 및 행사 시 대면 동참이 가능함을 공지했다.

지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 로 인해 축소 · 취소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던 불교계 행사도 활기를 띠고 있다. 공주 마곡사 산사음악회가 11월 6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됐고 부안 내소사도 11월 13일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준비 중이다. 법주사는 11월 6일 '산사의 울림' 행사를 온 · 오프라인 동시진행했으며, 해인사승가대학총동문회도 연기했던 '2021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를 11월 16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대면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찰 템플스테이 운영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그간 개인 휴식형 템플스테이만 제한적으로 진행돼 온 템플스테이를 위드코로나 특별템플스테이 형태로 확대하고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2년여 만에 재개했다. 위드코로나 특별템플스테이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내 · 외국인 대상 1박 2일 참가비 2만 원, 외국인 당일 템플스테이는 참가비 1만 원 할인가로 적용된다.

그간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국제개발구호NGO 활동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로터스월드는 위드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2주 전 캄보디아 사업장에 관리급 직원을 다시 파견했다. 올 중순부터 지속했던 코로나19로 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사찰 긴급지원캠페인은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더프라미스의 경우 코로나19와 더불어 쿠데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 긴급식량 지원을 위해 모금 중으로 곧 미얀마 7개 마을에 쌀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 11월 1일부터
전국사찰 대상 새로 방역지침
행사시 인원제한 대폭 완화돼
산사음악회 등 대면행사 활개
성지순례 · 국제개발협력사업
국가별 상황과 연계해 '기지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1월 10일 미얀마 재난위험경감사업 등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관들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발맞춰, 대면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사실상 중단되다시피했던 불교국가로의 성지순례도 들썩이고 있다. 대표적인 성지순례 국가인 인도의 경우 11월 15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발급을 재개하고, 신규 관광비자 50만명을 선착순으로 무료발급키로 하는 등 해외여행 및 교류 수준을 확대했다. 이에 일부 성지순례 여행사들은 인도를 중심으로 11월 중하순경의 인도성지순례 상품을 준비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서는 분위기다.

박규석 대승투어 대표는 "벌써부터 스님과 불자님들의 성지순례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성지순례의 본격적인 재개를 위해서는 각 국가별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안전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새로운 인연 추진위원회는 11월 2일 동국대 팔정도 광장에서 '불교 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 직후 진행된 전시회 라운딩에서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의 유묵을 보고 있다. 월주 스님은 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은사다. **사진=박재완 기자**

고승 유묵으로 '불교중흥' 초석 마련하다

11월2일 동국대에서 개막식 봉행
고승 선필 선화 등 350여점 선봬
전 작품 회주 자승 스님이 '희사'
수익금 전액 교계단체 지원 사용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초대형 선서화전이 시작을 알렸다.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새로운 인연 추진위원회는 11월 2일 동국대 팔정도 광장에서 '불교 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서화전 개막식에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 원행 대종사, 도선사 회주 동광 대종사,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동국대 건학위원회 최고위원장 돈관 스님과 교구본사주지 · 중앙종회의원 스님, 김재진 현대불교신문사 대표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운 인연(因緣)' 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선서화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포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계 단체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는 상월선원 만행결사를 이끌고 있는 회주 자승 스님의 평소 원력과 지론이 반영된 것이다. 평소 자승 스님은 "불교 중흥을 위해서는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임을 강조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계 단체들의 지원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개막식서 선서화전의 취지 및 경과를 발표한 동국대 건학위원회 최고위원장 돈관 스님은 "자승 스님께서는 교계단체들이 큰 원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 선서화전을 추진했다"면서 "이를 위해 소장하고 있던 선서화 및 작품 350여 점을 기증해 모든 수익을 교계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가시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며 수승한 뜻에 동참하겠다는 소중한 마음들이 하나 둘 함께하게 됐고, 불교 중흥의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의미있는 불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선서화전' 은 선서화를 통한 역대 고승대덕 스님들의 수행 경지와 선의 향기를 필묵으로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면서 "사부대중 모두가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함께해 불교의 미래 동량인 단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선서화전은 대자비의 실천이며 원로대덕 스님들의 숨결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또 다른 법석"이라며 "수많은 정성이 어우러질 때 전시회는 더욱 뜻깊은 불사가 될 것이다. 선서화전이 사부대중의 십시일반 속에 성공적으로 회향하길 거듭 기원한다"고 밝혔다.

개막을 축하하는 테이프 컷팅식을 마친 내외빈들은 동국대 본관 4층에 마련된 전시관을 라운딩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서화전에는 한국불교 선지식들의 선필(禪筆), 선화(禪畵)부터 한국화 명인들의 작품까지 350여 점이 전시됐다. 선필 대표작으로는 △진제 스님의 '붓다로 살자' , '불광보조(佛光普照)' 등 4점 △경봉 스님의 '반야심경 10폭 병풍' , '무진장(無盡藏)' 등 5점 △청담 스님 '불(佛)' △월하 스님 '대방무외(大方無外)' 등 2점 △석주 스님 '인중유화(忍中有和)' 등 2점이다. 또한, 원담 · 월산 · 고산 · 지관 · 법흥 · 원명 · 성파 · 설정 스님 등 대덕고승 스님들의 선기가 전해지는 선필 160여 점도 선보였다.

선화는 △석정 스님의 '달마도' , '일원상' 등 80여 점 △송담 스님의 '달마도' 2점 △중광 스님 '우담바라' 등 10점 △정현 스님 '판치생모' 등 5점 △수안 스님 '참좋은인연입니다' 등 25점 등을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범주 · 일장 · 원학 · 법관 · 성효 스님 등 그림을 통해 수행의 경지를 대중에 회향해 온 스님들의 선화 14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청남 오제봉 · 남농 허건 · 여초 김응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예와 한국화 작가들의 작품들도 전시됐다.

이날 개막한 선서화전은 11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전시회를 통해 조성된 기금 전액은 교육 · 포교 · 의료 · 언론 · 해외활동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봉은사에서 개최되는 상월결사 2주년 기념법회에서 전달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상월결사 2주년 섹션 특집 B1~8면

